

## 戊辰六條疏\*

崇政大夫 判中樞府事 신 이황은 삼가 재계하고 절하며 주상전하게 말씀 드립니다. 신은 초야의 미미한 존재로서 재주도 쓸모없고 나라 섬기기를 바로 하지도 못하고 향리에 돌아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先朝께서 잘못 아시고 총명을 자주 가해 주셨고 殿下께 이르러 더욱 잘못을 되풀이하하여 금년 봄의 特探除授에 이르러서는 더욱 놀랄 일이었습니다. 신은 雷霆을 무릅쓰고 감당 못할 것으로 사퇴하였든 바 양찰하여 주심을 입어 책임은 면하였으나, 품질이 고쳐지지 않고 분수에 넘친 일이 여전하오며 더욱이 신은 늙고 병들어 벼슬을 감당할 정력이 조금도 없는데 외람되이 높은 반열에 적을 두어 더욱 부끄럽고 송구스럽나이다. 있지 못할 자리에 오래 있어 聖朝를 욕되게 할 수 없나이다. 다만 이번 신의 상경에 분에 넘치게 상례와 다른 자애를 받자오니 신이 비록 평소에 籌策과 經略에 어둡기는 하오나 붉은 정성을 다하여 一得의 愚를 바치지 않을 수 없나이다. 구술로만 아뢰오면 정신이 흐리고 말이 늘변이어서 한 가지를 들고 만 가지를 빠뜨릴까 염려되웁기에 이에 감히 글로서 뜻을 진달하나이다. 모두 모아 엮어 육조로 갈라서 추론하온 것을 당돌하게도 「前疑」<sup>1)</sup>에 올려 드리오니 큰 보익은 감히 바라지 못하오나 「贊御의 箴」<sup>2)</sup>에 다소라도 보탬이 될까 하나이다.

첫째, 계통<sup>3)</sup>을 중히 하여 仁孝를 온전하게 할 것. 신은 듣자오니 천

\* 李相殷 譯(전 고려대 철학과 교수, 작고), 퇴계학 연구원, 『退溪學報』 제2호(1974)에서 내용 그대로 수록한 것임

- 1) 「前疑」, 疑는 고대의 벼슬이름이다. 『예기집해』에 「옛적에 친자는 반드시 네 이웃이 있으니 前은 疑라하고 後는 丞이라하고 左는 輔라하고 右는 弼이라한다」고 있다. 임금 앞에서 모시고 정사를 도와드리는 사람을 가리킨 말.
- 2) 「贊御之箴」 贊御(설어)=군주를 곁에서 모시는 시신. 「箴」은 경계하는 말.

하의 일이 군위의 일통에서 더 큰 것이 없다 하옵니다. 대저 더 클데 없는 계통으로써 아버지가 자식에게 전하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어받으니 그 일의 지중함이 어떠하겠나이까. 예로부터 인군은 누구나 지대·지중한 통을 이어받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지대·지중한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적어 효로서는 부끄러운 것이 있고 仁으로서는 도를 다하지 못한 자가 많사옵니다. 정상의 경우에 처신함이 오히려 그러하거늘 或旁支로써 入繼한 군주로서는 인효의 도를 다하는 자가 더욱 적습니다. 그리하여 彝倫<sup>4)</sup>의 教에 득죄하는 자가 자주 생기니 어찌 깊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호라! 하늘엔 두 해가 없고 백성에는 두 임금 이 없고 집에는 두 존장이 없고 喪事에 두 참쇠복이 없습니다. 옛 성인께서 本生의 恩이 중차대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예법을 제정하여 남의 후가 된 자로 하여금 아들로 삼았습니다. 기왕 아들로 되었으면 인효의 도는 마땅히 후가 된 곳에 오로지 해야 하고 본생의 恩은 도리어 이와 더불어 並立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義를 잡아 본생의 恩을 줄이고<sup>5)</sup> 恩을 높혀 후된 義를 완수하게 하였습니다. 주역에

3) 繼統, 계통을 잇는다는 말. 「통」은 혈통과 왕통이 다르다 혈연적으로는 직계로 父傳子, 子傳孫하는 혈통계승이 있고 왕조에서처럼 어느 왕이 無嗣했을때 傍系의 혈족 가운데서 적당한 인물을 골라 왕통을 계승시키는 수도 있다. 이때는 그 입계한 사람이 無后한 왕과 혈연적 촌수로는 비록 형제간이나 친질간이 되더라도 왕통으로는 즉 부자간이 된다. 이조 11대왕 중종의 맏아들 岫(호)가 12대왕 인종으로 재위하다가 죽은 뒤 후사가 없어서 중종의 둘째 아들 즉 인종의 동생인 奭(환)이 제 13대왕으로 입계하여 명종이 되었고 명종이 죽은 뒤 또 무사하여 중종의 서자 덕흥군 소의 아들인 鈞(入繼후에 憲으로 개명)이 입계하여 제 14대 왕통을 이었으니 이분이 즉 선조이다. 인종과 명종은 혈통으로는 형제간이나 왕통으로는 부자간이요 명종과 선조는 혈통으로는 숙질간이나 왕통으로는 종부·종자가 아니라 친부자간이다.

4) 「彝倫」, 불변하는 인륜의 도리

5) 「義를 잡아 本生의 恩을 줄이고 恩을 높여 後된 義를 완수하게 된다.」(秉義以殺本生之恩, 隆恩以完所後之義) = 여기 「義」라 함은 본래 군신관계를 말하는 것이요 「恩」이라 함은 부자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조

하나로 돌아감을 밝혔고 맹자는 두 근본을 경계하였으니 권형<sup>6)</sup>이 정해진 곳에 倫則<sup>7)</sup>이 환합니다. 하물며 旁支로 입계함에는 천명을 받아 보위에 오를 때 종사의 부탁이 어떠하였겠으며 신민의 앙대가 어떠하였겠습니까. 그 감히 사의로써 바꾸어 所後<sup>8)</sup>에 높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 하옵건대 주상전하께서 왕실 지친의 중하신 몸으로써 선왕의 豫簡<sup>9)</sup>의 명을 받들어 대통을 입승하였으니 인심이 천심과 합하였습니다. 상중에 癸疚<sup>10)</sup>를 극진히 하시고 애경이 幹蠱<sup>11)</sup>에 부족함이

는 덕홍의 아들로서 왕통을 입계하였으니 입계하기 전에는 본생부인 덕홍군이나 본 생모인 덕홍군부인 安氏에 대한 悃이 더 중하지만 입계한 뒤에는 입후한 부왕(명종)과 모후(명종妣·인순왕후) 沈氏에 대한 義가 더 크다·「義를 잡아 본생의 悃을 줄인다」는 말은 군신의 의를 상위에 두고 부자의 정을 하위에 두어 모든 예절을 거기에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은을 높여 후된 의를 완수케한다」는 것은 입계한 부모에 대한 은정은 본래 본생부모에 대한 은정보다 박한 것이니 이제 입후한 의를 완수하려면 입계한 부왕과 모후에 대한 은정을 높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은정을 높인다는 것은 효도하는 예의 절차가 거기에 따른다는 것이다. 한자의 「殺」은 죽인다 할 때는 「살」이라 발음하고 「줄인다」할 때는 「쇄」로 발음한다.

- 6) 「權衡」, 저울이다. 두 물건의 중량이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를 알려면 저울에 달아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저울은 중량을 결정하는 표준이다. 이제 본생의 은과 입후의 의와 어느 쪽이 더 중하나 하면 주역과 맹자의 말을 보더라도 입후의 의를 더 중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결정의 표준은 이미 서 있다. 그래서 권형이 정해졌다고 하는 것이다.
- 7) 「倫則」, 윤리의 법칙이란 말이니 전항의 표준이 일단 정해지면 생부모와 입후한 부모에 대한 인효의 절차는 법칙이 다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다.
- 8) 「所後」, 入後한 데, 後된 데.
- 9) 「豫簡」, 미리 골라 정하다. 선조는 명종이 아들을 죽이고 몸이 쇠약하고 병이 중해지자 국본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여 생전에 이미 후사로 입계시키기로 예정한 것이다.
- 10) 「癸疚」, 喪중의 근심하고 걱정하는 정. 선조는 입계할 때 생모 安氏의 喪을 당하고 있었다.
- 11) 「幹蠱」, 『易』 乾卦의 괘사 「幹父之蠱」, 「幹母之蠱」란 말을 줄인 것. 간괘의 뜻은 부모가 잘못해서 일을 그르쳐 놓았더라도 자식된 사람이 能幹하여 부모의 하던 일을 정성껏 잘하면 부모의 허물을 만회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없으시고 무릇 「繼志·述事」<sup>12)</sup>하는 일이 모두 지성에 나오고 衷誠에 말미암으시면 그 인효의 도에 있어서 용승을 다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위로 廟社의 神靈으로부터 아래로 신민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다 이미 함께 기뻐하고 서로 경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盤水보다 가지기 어렵고 善은 風燭보다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고어에 나무가 썩으면 벌레가 생기고 효는 처자 때문에 쇠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하의 마음은 물이 파도가 일지 않은 것 같고 거울이 먼지 앉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애의 마음이 藹然히 발하여 막힘이 없고 효순의 행이 순잡하여 틈새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에 이르러 이목의 가리움이 혼잡하게 퍼지고 애증의 흔들림이 아울러 세를 얻어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지는 동안 일에 등한하고 정에 끌리게 되면 그때 전하의 마음이 능히 밖으로부터의 변화를 받지 않고 심중에 변함없이 그날같이 탁연히 선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만 번 복을 받으시고 백 번 근심할 것 없습니다. 혹 불행히 聖慮의 깊으신 마음이 한 번 저쪽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종묘를 받들고 長樂<sup>13)</sup>을 받드는 바가 어긋나고 태만함이 있기 쉽고 사람이 혹시 편사의 틈을 타서 정경대의에 어긋나는 말로써 피이고 영합하면 그 마땅히 높일 것을 줄이고 줄일 것을 높이는 일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어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옛부터 입계하는 임금이 彝倫之教에 득죄함이 많은 까닭이며 오늘에 있어서 마땅히 지극한 경계로 삼아야 할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이

---

되었다.

- 12) 「繼志·述事」, 『中庸』에 「夫孝者·善繼人之志·善述人之事者也」라 한 말에서 줄인 것. 「先人의 뜻을 잘 이어서 先人의 하던일을 잘 따라한다」는 말
- 13) 「長樂」, 『漢書』 「高帝記」에 「5년에 長樂宮을 지어 7년에 완성하다」라고 했고, 程大昌의 雍錄에 의하면 「未央宮은 漢나라 서울 서쪽에 있고 長樂宮은 동쪽에 있었다. 漢都 장안에 양궁이 처음 건조되니 제후·군신을 長樂에서 조현하고 未央에서는 조현하지 않았다. 惠帝로부터 이후로는 다 未央宮에 거처하고 長樂에는 항상 모후를 모셨다」라고 장락(長樂)은 모후를 모신 궁이란 뜻으로 사용한 말이다.

감히 전하를 본생에 박하게 하도록 인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각 하옵기를 마땅히 높일 것은 성왕의 정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마땅히 줄이는 것은 선유의 정론이 쫓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높이고 줄이고 하는 것은 즉 천리·인육의 극치이니 한결같이 이에 따라 털끝만한 사의도 그 사이에 섞이지 말아야 仁되고 孝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러나 효는 백행의 근원이니 한 가지 행이라도 흠절이 있으면 순효가 못되는 것이며 인은 만선의 長이니 한 가지 善이라도 불비함이 있으면 全仁이 못되는 것입니다. 시에 이르기를 「시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을 잘 마침이 적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성명께서 유의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둘째, 참소를 막아 兩宮<sup>14)</sup>을 친하게 할 것. 신은 듣자오니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함이 慈가 되고 자식이 그 아버이를 잘 섬김이 孝가 된다고 합니다. 효·자의 도는 천성에서 나와서 중선의 으뜸 되는 것으로서 그 恩이 지극히 깊고 그 倫이 지극히 무겁고 그 情이 가장 절실합니다. 지심한 恩으로써 지중한 倫에 따라 최절한 情을 행하는 것이니 사리로 보아서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듯 한데 혹 효도가 결함이 있고 慈天<sup>15)</sup>도 흠이 있는 수가 있으며 심한 자는 지친이 豺狼으로 되어 거뒀 돌보지도 아니 함이 보통 사람에 있어서 면치 못함은 물론이요 제왕의 가정에 있어서 이런 폐환이 더욱 많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체로 그것은 정세가 막히기 쉽고 참소가 더욱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정세가 막히기 쉽다는 것은 궁전이란 처소는 엄하고 날마다 進見함에 세상과 隔阻되는 일이 많아 정이 퍼지지 못하고 뭉치는 수가 있기 때문이요 참소가 더욱 많아진다는 것은 양궁 사이에 좌우에 가까이 모시는 시신들과 총애를 받으며 심부름하는 시종들이 모두 환관과 여인들이운데 이 무리들의 본성은 대개 모두 음사·교회하여 간사함을 끼고 사사로운 생

14) 「兩宮」, 선조가 거처하는 왕궁과 입후한 명종妣 인순왕후가 거처하는 궁을 말함.

15) 「慈天」, 자애의 천성이란 말로 풀이되어야 할 것 같은데 「慈親」, 「慈母」의 의미로 사용한 것 같다.

각을 품어 난을 좋아하고 화를 즐기며 효·자가 무엇인지 예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섬기는 바를 중하다고 하여 이쪽 저쪽으로 서로 세를 갈라 대립하여 많은 것을 다투고 적은 것을 비교하는 통에 愆·愆이 손가락질 할 사이에 생하고 이해가 항배로서 결정되며 없는 것을 있다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며 정상이 만 가지로 나타나 도깨비와 같고 불여우와도 같이 혹은 격하여 怒하게도 하고 혹은 속여서 무섭게도 합니다. 그런 것에 혹시라도 귀를 기울여 聽信하게 되면 절로 불효에 빠져서 아버이를 不慈에 빠뜨리고 말 것은 필연한 일입니다. 대개 가볍이 엄정하고 양궁이 서로 기뻐하면 이 무리들은 그 간교를 쓸 여지가 없어 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서로 構陷하고 서로 시기하며 주인이 어둡고 倫常이 어긋난 다음에야 그 기량을 부러 참소가 행해지면서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소인과 여자의 通患입니다. 비록 그리 하오나 역시 군덕의 어질고 비루(鄙陋)함과 어거하여 다스림이 엄하고 방종함에 따라서 그 반응이 그림자와 소리 같이 빠른 것이온즉 요는 인군의 自治如何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능히 자치만 한다면 또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작년에 都下에서 길가의 소문을 들으니 즉위하신 처음에는 이 무리 가운데서 潛邸<sup>16)</sup>때의 구은을 믿고 上命을 기다리지 않고 감히 나아가 뵈려고 한 자가 있었는데 준엄하게 물리침을 당하고 말았다고 온 나라 사람이 모두 대성인의 하시는 일이 尋常한 사람보다 만 배나 뛰어난다 하며 우러러 칭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이래로 성덕이 날로 드러나고 인효가 틈새 없아오니 이로 미루어 가면 무슨 음사인들 납복 못 시킬 것이며 무슨 악이 감히 방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하께서는 이것을 믿고 「霜氷」<sup>17)</sup>의 계를 소홀하

16) 「潛邸」, 왕자가 즉위하기 전에 거처하는 저택을 잠저라 하는데 轉하여 「재야」란 뜻으로도 사용한다.

17) 「霜氷의 戒」, 『易』坤卦의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멀지 않다」(履霜 堅氷至)란 말이 있다. 좋지 못한 일은 한 번 해보면 그 뒤 차츰 더 하게 되어 마침내 큰 허물이 된다」는 경계하는 말이니 「점차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대저 전하의 효성으로써 일국의 봉양을 극진히 하시면 그 효는 크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人子의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니 어찌 나의 사친이 이미 죽었다고 다른 것을 걱정할 것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날 전하의 사친은 이른바 義로써 恩을 높이고<sup>18)</sup> 變으로써 常에 처함<sup>19)</sup>이니 이 두 가지 사이는 실로 소인·여자들이 틈 타서 혼란을 일으키려 하는 것입니다. 신은 전대의 일을 살펴보니 위로 자친이 있고 아래로 현사가 있으면서 환관·참첩이 그 사이에서 서로 싸워 그 효를 바로 끝맺지 못하는 자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궁중에는 「宿蠹·老蠹」<sup>20)</sup>가 앞 뒤 조론<sup>21)</sup>에서 깊이 염려한 대로 아직도 다 제거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아마도 「여원 도야지의 뿔 튀기」<sup>22)</sup>와 같을 뿐만이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주역의 「가인」<sup>23)</sup>의 뜻을 거울로 삼고 소학의 명륜의訓을 법으로 삼아 자치를 엄하게 하시고 正家를 삼가하시어 사친에 독실하시며 子職을 다하여 좌우의 근시들로 하여금 양궁의 至情은 孝慈에서 더 중한 것이 없으니 우리의 참소와 이간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

18) 「義로써 恩을 높이고」, 주 5),6)을 참조.

19) 「變으로써 常에 처함」, 숙질로서 부자가 되었으니 「變」이요 臣子로써 군부·모후를 모시니 「常」이다.

20) 「宿蠹·老蠹」, 묵은 간사한 무리와 늙은 좀도둑이란 말이니 老獯한 간신·소인들을 가리킨 것.

21) 「朝論」, 조정의 物論

22) 「여원 도야지의 뿔 튀기」, 『易』 姤卦·初六에 「羸豕孚蹢躅」이라고 있다. 本義에 「여위고 약한 도야지는 비록 猛強하지는 못하지만 그 속 마음은 도약하려는 데 있다. 소인은 비록 미약한 때에 있어도 군자를 해하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풀이 하였다.

23) 「家人」, 『易』 家人卦를 말함, 가인괘의 단사에 말하기를 「가인은 계집이 안에 자리를 잡고 사내가 밖에 자리를 잡아 남녀가 바른 상이니 이것은 천지의 대의이다. 가인은 엄군이 있으니 부모를 이룸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다와야 家道가 바르고 家道가 바르게 되어야 천하가 안정된다」고 하였다.

고 또 그 효자를 이루게 하는 자는 안전을 얻되 이간을 놓는 자는 죄를 얻는다는 것을 다 알도록 하면 자연히 음사와 중간 작난하는 폐단이 없어지고 효도가 꺾힘이 없이 될 것입니다. 또 이 마음을 미루고 이 성의를 써서 恭懿殿<sup>24)</sup>에 효경을 드려 언제나 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도의 隆이 잇따르고 仁이 지극하며 義가 다하여 삼궁<sup>25)</sup>이 기뻐 화합하고 만복이 갖추 이를 것입니다. 시에 이르기를 「조고맙게 시작하여 큰 말썽을 이룬다」<sup>26)</sup>하고 또 이르기를 「길이 孝思를 말하니 효사는 범으로 된다」<sup>27)</sup> 하였습니다. 성명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聖學을 돈독히하여 정치의 근본을 세울 것. 신은 듣자오니 제왕의 학과 심법의 요는 대순의 우에게 명한 말에 연원하였다 합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은미하니 오직 精하고 一하여 그 中을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천하로써 서로 전할 때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편안하게 하려는 것인 만큼 그 부탁하는 말이 정치에서 더 급할 것이 없겠거늘 순이 우에게 친절히 타이름이 이 몇 마디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 어찌 학문·성덕<sup>28)</sup>으로써 정법의 대본을 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精一·執中은 爲學의 대법입니다. 대법으로써 대본을 세우면 천하의 정치는 다 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옛 성인의 말씀이 이러함으로 신같은 어리석은 자로서도 성학이 지치의 근본이 됨을 알고 외람되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하오나 순의 이 말은 그 위태롭고 은미한 것만 말하고 그 위태롭고 은미한 까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精一만 가르쳐 주고 정일하는 법은 보여주지 아니하여 뒷 사람이 이에 의거하여 도를 참으로 알고 참으로 실천하려고 해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열성이 서로 이어 공자에 이르러 그 법이 크게 갖추어지니 대학의 「格致·誠正」<sup>29)</sup>과 중용의 「明善·誠身」<sup>30)</sup>이

24) 「恭懿殿」, 인종왕비의 침전.

25) 「三宮」, 인종왕비궁, 명정왕비궁과 왕의 궁전을 가리킨 것.

26) 『詩』 「소아·향백편」에 있는 말.

27) 『詩』 「대아·하무편」에 있는말.

28) 「成德」, 덕을 이룬다.



그것입니다. 그 뒤 제유가 번갈아 일어나 주자에 이르러 그 설이 크게 밝아지니 대학·중용의 「章句·或問」<sup>31)</sup>이 그것입니다. 이제 이 두 책을 배워 眞知·實踐의 학문을 하면 중천에 해가 뜬 것 같아야 눈 뜨면 다 보이고 큰 길이 앞에 놓인 것 같아야 발을 들면 밟을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세상의 인군으로서 능히 이 학문에 뜻 두는 사람이 적습니다. 혹 뜻을 두더라도 능히 유시·유중한 사람이 더욱 적습니다. 오호라! 이것이 도가 전하지 못하고 정치가 옛적 같지 못하는 까닭이냐 아마 사람을 기다려서 그런 것인가요? 삼가 생각하옵건대 주상전하께서 신성한 자질이 하늘에서 태어나셨고 睿哲한 학문이 날로 새로워지시어 유신의 講官들이 감복하여 찬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러면 전하께서는 이 학문에 자질이 있으시고 그 뜻이 있으신 것이며 그 致知의 방법과 力行的 공부에 있어서도 그 시초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이것으로써 곧 능지·능행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컨대 먼저 치지의 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성정·형색<sup>32)</sup>과 일용이륜의 가까운 것으로부터 천지만물과 고금사변의 잡다한 것에 이르기까지 지실한 이치와 지당한 법칙이 존재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른바 天然自有의 中이란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움을 넓히 하지 않을 수 없고 물음을 자세히 하지 않을 수 없고 생각을 삼가 하지 않을 수 없고 변별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네 가지는 치지의 절목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도 생각을 삼가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생각이란 무엇인가요? 마음에 구하여 증험이 있고 연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히 마음에 증험하여 그 「理·欲」 「善·惡」의 기미와 「義·利」 「是·非」의 판별을 밝게 가려 정미롭게 연마하고 조금도 틀림이 없으면 이른바 「危·微」의 까닭과 「精·一」의 방법이란 것이 과

29) 「格致·誠正」, 『大學』의 「格物·致知·誠意·正心」을 줄인 말.

30) 「明善·誠身」, 『中庸』에 있는 말. 「선을 밝히고 몸에 진실되게 한다」.

31) 「章句·或問」, 주자가 편술한 대학장구, 중용장구와 대학혹문, 중용혹문.

32) 「形色」, 『孟子』에 나오는 「形色天性」이란 말에서 유래한 용어. 사람의 형체, 용모 및 육체적 기능을 말함.

연 이런 것이라 함을 참말로 알아서 의심됨이 없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네 가지의 공부에 대하여 이미 그 시초를 열어 발단을 하셨으니 신은 청컨대 그 발단에 인하여 더욱 그 積累의 공부를 이루시기 바라나이다. 그 절차와 조목은 흑문에 자세히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敬으로써 주요한 방법을 삼고 사사·물물에 있어서 그 소당연과 소이연의 까닭을 궁구하지 않음이 없으며 침잠·반복하고 玩索·體認함을 극치에 이르게하여 세월이 오래서 공력이 깊어짐에 이르면 하루 아침에 주연히 녹아 풀리고 확연히 관통함이 있음을 절로 느끼게 되는 것이오니 이때에 비로소 「體와 用이 한 근원이요 顯과 微가 틈이 없다」는 말이 진실로 그러함을 알아서 「危·微」에 혼미되지 않고 정일에 현혹되지 아니하여 中을 잡을 수 있게 될 터이오니 이것을 일러 참말로 아는 것(眞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신은 청컨대 다시 力行의 일로써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의는 반드시 기미에 살펴 일호의 불실도 없이 하고 정심은 반드시 동정에 살펴서 일사의 부정도 없이 하고 수신은 일벽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제가는 일편에 버릇되지 않게 하여 계구·근독하고 強志不息하는 이 몇 가지가 역행의 절목이오며 이 가운데서도 「心」과 「意」가 가장 관계가 크웁니다. 심은 천군<sup>33)</sup>이요 의는 그 발<sup>34)</sup>한 것입니다. 먼저 그 발한 것을 진실되게 하면 하나의 진실됨이 족히 만 가지 거짓을 씻어 없앨 수 있고 그리하여 그 천군을 바르게 하면 百體<sup>35)</sup>가 명령에 따라 행하는 바가 實이 아님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이 몇 가지의 공부에 대하여 이미 그 시초를 열어 그 단서를 잡으셨으니 신은 청컨대 그 단서에 인하여 더욱 그 친절한 공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규모와 종지는 두 책에 垂示한 교훈에 따르면 敬을 주하여 수시·수처에 생각마다 이를 잊지말고 일일마다 조심하여 萬累·衆欲이 靈臺<sup>36)</sup>에서 깨끗히 씻어지고 오상·백행이 지선에 연마되어 食

33) 「天君」, 『荀子』 「해폐」 편에 마음(心)을 천군이라 하였음.

34) 「發」, 마음이 안에서 움직여 밖으로 나타남을 「발」이라함.

35) 「百體」, 『莊子』에 「四肢百體」라 있음, 이목구비·혈육·모발 등 모든 신체에 속한 것을 총칭하는 말.

息<sup>37)</sup>·酬酌하면서 의리에 잠겨 체염하고, 징분·질욕<sup>38)</sup>과 천선·개과에 있어 「誠·一」에 힘쓰며, 광대·고명하되 예법에 떠나지 않고 「參贊·經綸」<sup>39)</sup>하되 다 옥루<sup>40)</sup>에 근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공부를 쌓아 시일이 오래면 자연히 의가 精해지고 인이 익숙하여 그

- 
- 36) 「靈臺」, 『莊子』 「경상초」 편에 「영대에 드러놓아서는 안된다 (不可內於令臺)」라고 있는데 注에 영대는 心이라 하였음.
- 37) 「食息·酬酌」, 食은 먹는 것, 息은 쉬는 것, 「酬酌」은 「酬酢」이라고도 쓰는데 「응대한다」는 뜻.
- 38) 「懲窒」, 懲忿·窒慾이란 말을 줄인 것, 분노를 억제하고 사욕을 막는다는 말.
- 39) 「參贊·經綸」, 『중용장구』 제 22 장에 「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能盡人之性 則能盡物之性·能盡物之性 則可以贊天地之化育·可以贊天地之化育 則可以與天地參矣」라고 있다. 여기 「贊天地之化育」이라한 「贊」자와 「可以與天地爲參」라 한 「參」자가 이 글에서 「參贊」이라 한 參贊 두 자의 출전이다. 「贊」은 「돕는다」(助)는 뜻이요 參은 「셋」이란 말이다. 중용의 이 22장의 대의는 「至誠의 덕을 갖춘 성왕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덕행을 지님으로 인성·물정을 다 통하여 알고 그 처리를 다 함당하게 할 수 있으므로 천지의 만물을 생장·화육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천·지와 더불어 병립하여 셋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천·지와 더불어 셋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천지자연의 일에 「참여」(參與)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參」자는 「셋」이라 하면 음을 「삼」으로 읽지만 「참여」한다 하면 음을 「참」으로 읽는다. 「參贊」이라 할 때는 「참찬」으로 읽어야 한다. 중용장구 제 32장에 「唯天下至誠·爲能經綸天下之大經·立天下之大本·知天地之化育」이라고 있다. 이 글의 「참찬경륜」이라 한 경륜 두 자는 여기서 말한 「천하의 大經을 경륜한다」는 그 경륜을 말하는 것이다. 「천하의 大經」이란 즉 군신·부자·형제·부부·붕우의 다섯 종류의 윤리를 뜻하는 것이다. 정치에 있어서 이 오류의 대법을 잘 계획·실시하는 것을 경륜이라 하였다.
- 40) 「屋漏」, 『詩』 「대아·역」 편의 「不愧于屋漏」란 말에서 나온 문자이다. 실내의 서북 귀퉁이를 옥루라 하는데 그것은 실내에서 가장 깊은 곳이요 어두운 곳이라 사람이 잘 보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사람이 못보는 곳에서 부끄러움이 없으라」한 것은 군자의 도덕적 수양을 의미한 것이니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말이다. 「옥루」 두 자만 가지고 이 글에서는 「不愧屋漏」의 뜻까지 겸하고 있다.

만 두려해도 그만둘 수 없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현의 중화<sup>41)</sup>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실천의 효가 이에 이르면 도가 이루고 덕이 서게 되나니 爲治의 근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법칙은 과연 자기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오니 자신만 바르면 절로 羣賢이 함께 나아오고 공적이 크게 빛나 융평<sup>42)</sup>한 세상을 이루어 백성을 仁·壽의 경지에 까지 인도함<sup>43)</sup>도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제왕의 학은 「經生<sup>44)</sup>·學子」와 같지 않다고 하오나 이것은

- 
- 41) 「中和의 域」, 『中庸』 첫 장에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中也者·天下之大本·和也者·天下之達道·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라고 있다. 「中和의 域」이란 중화는 「致中和」의 「중화」를 말하는 것이니 「중」은 불편·불기하여 과불급이 없는 중도를 말하는 것이요 「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모순충돌이 없는 조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위정자의 「喜怒哀樂의 發」—(실제의 의미는 사리판단을 가리킴)—이 공정 무사하면 그 판단에 따라 취해지는 시책들이 모두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합리한 노선을 따르게 되므로 인화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中和의 域」은 이상적 정치를 의미하는 말.
- 42) 「隆平」, 「융」은 융성 —즉 발전을 뜻하는 말이요 「평」은 평화안정을 뜻하는 말.
- 43) 「백성을 仁壽에 이끌어 넣는다」, (納民於仁壽之域) 仁壽 두 자의 출전은 『論語』에 「知者動·仁者靜·知者樂·仁者壽」라 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인의 덕을 가진 사람은 오래 산다고 해서 仁壽라 하는 것이나 공자는 또 「仁者樂山·知者樂水」라하여 인자의 덕을 후중한 것으로 보았다. 후중한 덕을 가진 사람은 경박한 덕을 가진 사람보다 더 장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 정치가 잘 되어 백성들이 모두 安居樂業하면서 후중한 인격을 갖추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을 일러 「納民於仁壽之域」이라고도 한다. 『漢書』 동중서에 「堯舜行德·則民仁壽」라 했고 『漢書』 禮樂志에 「驅一世之民·濟之仁壽之域」이라고 하였다. 「仁壽之域에 백성을 몰아 넣는다」는 뜻이다.
- 44) 「經生·學子」, 진시황이 유가의 경전을 태워버린 뒤 한 무제 이후로는 흩어졌던 경적들을 민간에서 수집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 경적들을 교감하고 해석하는 학자들을 벼슬을 주어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하였다. 이런 경학을 하는 학자를 경학박사라고 불렀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학에 박사를 두었다. 이 박사들을 經生이라고 하고 그 박사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글뜻이나 캐고 책읽기나 잘 하는 류의 일을 말한 것이요 敬으로 근본을 삼고 이치를 궁구하여 지를 다하고 몸에 돌이켜 실을 행하는 일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묘한 심법이며 도학을 전하는 요체인데 제왕과 상인이 무슨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지와 실천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가 빠져도 안되며 사람의 두 다리와 같아서 서로 기다려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자는 이르기를 「치지하면서 敬에 있지 않은 자가 없다」하였고 주자도 이르기를 「궁행함에 공부 없으면 理를 궁구할 곳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二者의 공부는 합해서 말하면 서로 시종이 되고 나누어 말하면 또 각각 시종이 있습니다. 오호라! 시가 없으면 종이 없을 것은 물론이나 종이 없으면 시가 무슨 쓸 데 있겠습니까? 人主의 학이 대개 시가 있고 종이 없거나 시에 부지런하고 종에 게으르며 시에 조심하고 종에 방사하여 들락날락하는 마음으로써 하다 말다 하다가 마침내 덕을 멀하고 나라를 그르치는 결과로 되고 마는 자가 많으니 이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위태로운 것은 인심이라 欲에 빠지기 쉽고 理에 돌아가기 어려우며 은미한 것은 도심이라 잠깐 理에 눈을 뜨다가도 곧 欲에 눈을 감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빠지기 쉬운 것으로 하여금 물러서 일지 못하게 하고 잠깐 눈뜨는 것으로 하여금 계속해 중단이 없게하여 제왕이 상전하는 執中의 實을 성취시키려면 精하게 하고 一하게 하는 공부가 아니고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傳說<sup>45)</sup>은 말하기를 「學은 뜻을 겸손하게 하고 시종 끈임 없이 배움을 생각하면 그 덕이 모르는 사이에 닦아진다」고 하였으며 공자는 말씀하시기를 「이를 데를 알아 이르면 가히 더불어 도에 가까이 할 수 있으며 그칠 데를 알아 그치면 가히 더불어 의를 보존할 수 있

---

學子하고 부른다.

45) 「傳說……」, 傳說(부열)은 은나라 고종의 신하이다. 『書經』 「열명」 편에 부열이 고종에게 성학을 권면하는 말로서 「학문은 겸손한 마음으로 언젠가 부지런히 힘써야 하며(惟學遜志·務時敏) 가르침과 배움이 반반이니 시종일념으로 학문에 뜻을 두어 간단이 없으면 모르는 사이에 德이 닦아진다(惟數學半·念終始·典于學·厥德修·罔覺)고 한 것이었다.

다」<sup>46)</sup>고 하였습니다. 오직 성명께서 유의하시기 바라나이다.

넷째, 道術을 밝혀 인심을 바로잡을 것, 신은 듣자오니 唐虞 삼대의 성세에는 도술이 밝아 다른 기로에 혹됨이 없었으므로 인심이 바르고 治化가 행하기 쉬웠는데 衰周<sup>47)</sup> 이후로는 도술이 밝지 못하여 사특한 학설들이 함께 생겨 났습니다. 그래서 인심이 바르지 못하여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고 교화시키려 해도 교화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도술이라 하는가? 천명에서 나와서 彝倫에 행하여 천하·고금이 같이 말미암는 길입니다. 요순·삼왕은 이것을 알고 그 위를 얻었으므로 혜택이 천하에 미쳤고 孔·송·思·孟은 이것을 알지만 위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가르침이 만세에 전하였습니다. 후세의 인주들이 그 교에 인하여 도를 얻어서 일세에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리를 혼란시키는 이단의 설과 정도를 더럽히는 功利의 무리 선동·유혹하며 돌아다녀 인심을 陷溺하니 그 禍端이 하늘에 닿아 구할 수 없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송대 제현들이 이 도를 크게 천명하였으나 모두 당세에 등용되지 못하여 그 彝教<sup>48)</sup>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는 所以의 것도 당시에 공효를 거두지 못하고 다만 만세에 전할 뿐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동방은 海隅에 치우쳐 있어서 기자의 흥범이 전함을 잃고 지나온 세대가 망망하여 알 수

46) 「知至至之……」, 易· 건괘· 문언에 「子曰·君子進德修業·忠信所以進德也·修辭立其誠·所以居業也·知至至之·可與幾也·知終終之·可與存義也」라고 있다. 정자역전의 풀이에 의하면 “「知至至之」는 치지이다. 이를 데를 안 다음에 이르니 知가 먼저이다. 그러므로 可히 幾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니 이것은 이른바 「始條理者·知之事也」란 것이다. 「知終終之」는 역행이다. 이미 그칠 바를 알았으면 힘써 나아가 그치니 지킴이 뒤이다. 그러므로 가히 의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것은 이른바 「終條理者·聖之事也」란 것이다. 이것이 學問의 始終이다” 라고 하였다.

47) 「衰周」, 주나라가 평왕이 동천하기 전까지를 서주라 하고 동천한 뒤로는 동주하고 하는데 서주 때는 정치가 잘 되었으므로 盛周라 하고 동주 때는 정치가 문란하여 나라가 쇠미하게 되었으므로 衰周라 한다.

48) 「彝教」, 彝倫(이륜) 외 教訓이란 말인데 彝는 「항상·변치 않는다」는 뜻이다. 오류의 교는 변치 않는 것이라고 해서 이교라 하는 것이다.

없다가 여말에 程朱의 글이 처음 이르러 도학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본조에 들어와서 성왕들이 서로 이어 업을 창건하고 전통을 드리웠사운데 그 규모·전장은 대개 모두 이 도의 응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국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백년이 되어 가는데 治教를 어루만져 보고 선왕의 도로써 헤아려 보면 열성의 마음에 겸연한 생각이 있음을 면치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역시 도술이 밝아지지 못하고 다른 岐道の 설들이 인심을 해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상전하께서 요순의 자질로써 제왕의 학을 몸소 하시어 옛 도에 뜻 두시고 治를 구하기를 목 마르듯 하시어 장차 「斯文」을 일으켜 일세를 당우 삼대의 융성에 올려 놓으실 생각이시니 진실로 우리 동방에서는 千載 一時의 기회로서 조야가 기뻐하여 눈을 씻으며 서로 경하하지 않는 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왕의 도술을 밝히어 일대의 趨向할 바를 정하여 인솔·지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쌓인 의혹을 풀고 빗나간 길을 버리고 일변하여 나의 大中至正한 가르침을 따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반드시 도술을 밝히고 인심을 바로 잡음으로써 新政의 獻策으로 삼는 바입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오나 그 밝히는 일에 있어서 또 본말·선후·완급의 시책이 있고 그 본말에 또 허·실의 다름이 있으니 인군의 궁행·심득한 것에 근본하여 민생의 인운일용의 교화에 행하는 것이 본이요 남의 법제를 따르고 문물의 겉치레나 하고 현행의 것을 옛 것으로 고치어 모방하고 비교하는 것은 末입니다. 본은 먼저 할 바이니 급한 것이요 말은 뒤에 할 바이니 천천히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를 얻어 군덕이 글러지면 본말이 다 실하여 당우의 治가 되고 그 도를 잃어 군덕이 이루어지면 본말이 다 허하여 말세의 화가 되는 것이니 허명을 믿고 聖治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없음은 물론이요 要法에 어두어 가지고 심득의 묘를 구한다는 것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진실로 허명의 믿지 못할 것을 아시고 要法을 구하여 도학을 밝히려고 하시거든 신이 앞에서 논한 진지·실천의 설을 깊이 명심하시어 敬으로써 시작하시고 敬으로써 끝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실 때 이는 바가 애매하여 명철하지 못하거나 행하는 바가 혹 모순되어 잘 들어맞지 않더라도 이것 때문에 함부로 기피하거나 주저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성인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 다만 나의 공력이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고만 생각하시고 힘쓰고 힘써 중도에 그만두어 없이 오래 공력을 쌓아 익숙해지면 절로 「精義入神」<sup>49)</sup>의 경지에 이르러 도리가 환하게 내다보이고 얼굴과 몸에 수양의 공효가 넘쳐흐르고 신변의 사물이 어느 것이나 나의 수양의 자원이 되지 않는 것이 없이 되나니 이것을 일러 공행·심득하여 도가 자기에게 밝아졌다고 하는 것이며 요순·문왕의 「克明德」<sup>50)</sup>이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로부터 미루어 가면 어디를 가나 도가 아닌 것이 없으니 九族을 친하게 하고 백성을 平章<sup>51)</sup>하게 되며 「關雎·麟趾」<sup>52)</sup>의 化로부터 「鵲巢·騶虞」<sup>53)</sup>의 덕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어

49) 「精義入神」, 의리(도리)를 심분 정밀하게 다하여 신묘한 경지에 들어간다는 뜻, 출전은 『易』繫辭下에서.

50) 「克明德」, 『書經』 「요전」에 「克明俊德·以親九族·」—「큰 덕을 잘 밝혀 구족을 친하게 하다」라고 있다.

51) 「平百姓」, 전항 요전글에 계속하기를 「九族既睦·平章百姓」—「구족이 화목해진 다음 백성을 골고루(平) 밝히게(章)하였다」라고 있다.

52) 「關雎麟趾의 化」, 關雎와 麟趾는 詩經·국풍·주남의 첫 편시와 끝 편시의 제명이다. 관저시에서는 문왕후비의 덕을 읊어 王化의 기본이 부부의 화합에서부터 시작함을 말하였고 린지시에서는 문왕의 자손종족들이 모두 덕에 화하여 인후하게 되었음을 읊었다. 그러므로 관저린지의 화란 즉 부부의 도가 행해져서 가정이 잘 다스려짐으로써 그 덕화가 후세에까지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53) 「鵲巢騶虞의 德」, 작소와 추우는 詩經·국풍·소남의 첫 편시와 끝 편시의 제명이다. 작소시는 부인의 덕을 읊은 것이니 국군이 행을 쌓고 공을 쌓아 작위를 얻으면 부인이 시집와서 살림을 차려사는 것을 말하였고 추우시는 봄날 밭에서 초목이 무성하고 금수가 많음을 읊은 것인데 문왕의 化가 수신·제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치국에까지 이르니 백성이 인후해지고 금수초목까지 번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작소·추우의 덕」이란 즉 문왕 仁政의 化가 먼 지방에까지 미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찌 요순·문왕의 때와 다르겠습니까? 덕화가 향기롭게 풍기어 안과 밖이 융화하고 조정에는 敬·讓이 지켜지고 가정에는 효·제가 행해지며 士는 學을 알고 民은 義를 알게 되니 인심이 어디 바르지 못할 것이 있으며 도술이 어찌 밝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순자는 이르기를 「임금이란 사발(盂)이다. 사발이 모나면 물이 모난다. 임금이란 표말뚝이다. 말뚝이 바르면 그림자가 곧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러하오나 微臣의 사사로운 근심이요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오나 신은 人心岐惑의 설에 대하여 특히 더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옵기를 이단의 해는 불씨가 가장 심하여 고려는 이로 인하여 망국에 이르렀고 我朝의 盛治로서도 근저를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여 이따금 때를 타서 일어납니다. 비록 선왕이 그 그림을 곧 깨닫고 소제해 버렸사오나 餘波·遺燼이 아직도 남아있고 老莊의 虛誕은 가끔 즐겨 숭상하여 聖人을 모독하고 예의를 멸시하는 풍이 간간히 일어나며 관중·상앙<sup>54)</sup>의 술은 요행 전술되지는 않았으나 計功·謀利하는 폐단은 아직도 고질로 되어있고 향원<sup>55)</sup>의 덕을 어지럽히는 습관은 말류들의 세상 아침에서 시작되었고 속학의 방향혼미의 폐환은 과거보는 사람들의 명리추측에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물며 명리를 찾고 仕宦을 구하는 길에 있어서 기회를 엿보고 틈새를 타서 요리붙고 조리붙는 무리들이 또 어찌 다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보면 오늘날의 인심의 부정은 심합니다. 만약 불행히 주상께서 도를 지향하는 마음이 당초만 못하게 되어 혹 호·오의 편파에 나타나고 혹 己私의 간극에 새어 나간다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잠연히 함께 나와 도깨비 처럼 요술을 피우며 百端으로 뚫고 들어오려고 할 터이오니 한 번 그것에 넘어만 가면 곧 그들과 더불어 화하여 버리게 됩니다. 그 쪽에 좋아하면 이 쪽

54) 「管仲商鞅의 術」, 관중은 제환공을 도와서 폐업을 이루었고 상앙은 노공을 섬겨 부강을 이루었다.

55) 「鄉原」, 鄉愿과 같음 『論語』에 「鄉愿德之敵也」라고 있다. 마을에서 사람들로부터 군자라고 불리우지만 실은 팔방미인의 위선자.

에 싫어하고 그 쪽에 편들면 이 쪽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고로 인군이 처음엔 청명하여 그 정치가 볼 만 하다가도 얼마 뒤는 간사에 넘어가고 이단에 혹하여 공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치는 자!—마치 宋의 철종·휘종·영종·이종같이 되는 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업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옛 사람의 실도한 것을 오늘의 명감으로 삼아 뜻을 굳게 잡으시고 시종일관 변함이 없으시고 도를 일월같이 밝히시어 요기를廓淸하여 간여 못하게 하시고 講道나 求治나 다 항구함을 꾀하여 마지 않으시면 다만 일어나려고 하는 선비와 스스로 새로워지려고 하는 백성이 다 대도에 오를 뿐 아니라 전날의 羣邪·雜姦도 장차 神化에 따라 변하게 될 것이오니 여찌 감히 나아와 나의 걱정이 되겠습니까! 역에 이르기를 「성인은 그 도에 오래있으면 천하가 화한다」<sup>56)</sup>하였고 맹자는 이르기를 「군자는 상도에 돌아갈 뿐이다. 상도가 바르면 서민이 [道義에] 일어나고 서민이 일어나면 사특이 없어진다」<sup>57)</sup>고 하였습니다. 오직 성명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腹心을 미루어 이목을 통할 것. 신은 듣자오니 일국의 체는 일인의 몸과 같다 하옵니다. 사람의 한 몸에 머리(元首)가 위에 있어서 아래를 統臨하고 복심이 가운데서 이어받아 일을 맡고 이목이 곁으로 퍼져 호위하고 일깨워 주어야 몸이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주란 일국의 원수입니다. 대신은 그 복심이요 대간<sup>58)</sup>은 그 이목입니다. 3자는 서로 기다리어 서로 이루는 것이니 이는 나라를 가지는 常勢요 천하고금의 공지하는 바입니다. 옛 인군으로서 대신을 신임하지 않고 대간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이는 비유하면 사람이 그 복심을 스스로 끊으며 그 이목을 스스로 막는 것과 같으니 머리만으로 홀로 사람

56) 「聖人は 그 德에 오래 함으로……」, 『易』 恒卦·단전에 「日月得天而能久照·四時變化而能久成·聖人久於其道而天下化成·觀其恒而萬物之情可見矣」라고 있다. 항구불변함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57) 「反經」, 『맹자』 진심하에 있는 말. 「經道—즉 상도에 돌아간다」, 「상도를 회복한다」는 뜻.

58) 「臺諫」, 대 =사헌부 간 =사간원

이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혹 대신을 신임하는 자 있어도 신임이 그도에 따르지 않고 그 구함이 능히 匡濟<sup>59)</sup>·輔弼할 수 있는 현자를 구하지 않고 오직 아유하고 잘 따르는 자를 구하여서 그 私를 이루려고 하니, 그 얻은 것이 간사하여 정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흉악하여 권력을 傳斷하는 사나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런 사람으로써 자기욕심을 채우는 복심으로 삼으면 신하는 이런 임금으로써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원수로 삼아 상·하가 서로 가리우고 서로 결탁하여 남이 그것을 간여할 수 없이 됩니다. 혹 경직한 선비가 있어서 그 예봉을 건드리면 반드시 竄謫·誅戮을 가하여 양념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야 맙니다. 이 때문에 충신과 현인은 다 쫓겨나서 국내가 공허하게 되고 이목의 사직은 모두 當路<sup>60)</sup>者의 私人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이목이란 것이 원수의 이목이 아니라 當路者의 이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르러 이목을 빙자하여 勢를 올리고 氣焰을 부채질하여서 권신의 악을 편들어주면 복심으로 말미암아 악이 쌓이고 화가 쌓여 마침내 閹主의 사특을 이루어 놓고는 오만하게 각자 자기의 원대로 되었다고 자만하지만 실은 원수의 독기가 복심에서 발했고 복심의 독충이 이목에서 기인한 것인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예나 이제나 같은 궤철인데 前憲이 넘어져도 뒤에오는 자, 그것을 경계삼을 줄 모르고 잇따라 그 길을 밟아 마지아니 하니 실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조정의 일은 이와 달라서 聖智의 덕은 출중하여 정통의 體로서 일국의 원수로 되셨고 복심의 地와 이목의 官도 다 못 사람 중에서 골라 뽑아 그 책임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역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같은 소리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이 서로 구하며 물은 습한 데로 흐르고 불은 마른 곳으로 붙으며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른다」고, 위에는 성주가 있으니 현신이 없을 것이 염려되지 않습니다. 신은 바라옵건대

59) 「匡濟」, 匡=바르게 한다. 濟=구제한다. 악을 바로잡아 선으로 인도함을 말함.

60) 「當路」, 당시요직을 차지한 사람, 세력을 가진 사람.

성상께서는 오직 하늘의 明命을 돌보시고 몸을 공경되이하여 남면의 자리를 지키시고 복심에게 정성을 미루시고 밝은 눈 밝은 귀로 民에게 中을 세우고 위에서 極을 세우시어 일호의 사의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 흔들지 못하게 하시면 輔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沃心·陳謨」<sup>61)</sup>와 「論道·經邦」<sup>62)</sup>으로써 自己의 責任을 삼을 것이요 간쟁의 列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面折·延爭」<sup>63)</sup>과 「補闕·拾遺」<sup>64)</sup>로써 그 직책을 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 가지 형세가 연통하여 精을 모두고 神을 모아 통해서 일체가 되면 이렇게 되어서 조정에 善政이 없고 나라에 善治가 없고 세상이 隆平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신은 들은 바 없습니다. 비록 그러하오나 益이 舜을 훈계하여 이르기 「근심 없을 때 경계하고 법도를 잃지 말고 안일·음락에 빠지지 말고 어진 이에 맡기면 의심하지 말고 사특함을 버리면 과단있게 하라」<sup>65)</sup>라고 하였습니다. 인주의 마음이 한 번 경계를 태만히 하여 佚樂에 빠지게 되면 법도가 곧 뒤따라 무너질 뿐 아니라 어진 이도 마침내 맡겨쓰지 못하고 간사도 능히 버리지 못할 것은 理勢의 필연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잘 다스리는 조정일지라도 혹 불행하게 이러한 징조가 있게되면 대신은 반드시 임금

- 
- 61) 「沃心諫謨」, 沃(옥)은 눈에 물대주는 것. 마음에 물대준다 (沃心)는 말은 남이 모르는 것을 알도록 알려준다는 말. 『書』 「열명」에 「啓乃心·沃盡心」이라고 있음. 간모 =국가대계(謨)를 진술함.
- 62) 「論道經邦」,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한다. 군주시대 재상의 임무가 이것임.
- 63) 「面折延爭」, 잘못하는 일, 그릇된 말을 당면해서 꺾어버리는 것이 面折, 조정에서 闕廷內에서 항쟁하는 것을 延爭이라 함, 군주시대 대간들은 임금이 잘못이 있을 때 面折·延爭해서 그 책임을 완수함을 이상으로 함.
- 64) 「補闕拾遺」, 임금의 과실을 바로잡아 구해 주는 것을 「補闕」이라 하고 임금이 미처 생각지 못한 잘못을 발견해 알려줌을 「습유」라 한다. 사기·급암전에 「願出入禁闕·拾遺補過」라 있고 魏志·杜畿傳에 「古之三公·坐而論道·內職大臣·納言補闕」이라고 있다.
- 65) 「益의 舜을 경계하는 말……」, 『書』 「대우모」에 「益日! 吁! 戒哉! 儆戒無虞·罔失法道……」 운운이 있음.

의惡에 영합하여 국권을 도적질 할 것을 꾀하려는 자 있고 소신들은 반드시 세력있는 자에 아첨하여 자기의 사리를 탐하려는 자가 있어서 드디어 전일의 腹心이 변하여 오늘의 도둑이 되고 전일의 이목이 변하여 오늘의 눈가림이 되고 전일의 일체가 변하여 오늘의 「胡·越」<sup>66)</sup>이 되어 쇠란의 형세와 위망의 사태가 다른 때를 기다리지 않고 곧 목전에 당도하게 됩니다. 臯陶의 노래에 이르기를 「원수가 죄죄하면 股肱이 게으르고 만사가 무너진다」<sup>67)</sup>고 하였습니다. 만사가 무너지는 것은 그 책임이 원수에 있다는 말입니다. 宋나라 신하 왕개지는 말하기를 「재상으로서 宮禁의 의향을 받들며 급사로서 재상의 풍지를 받들게 되면 조정의 기강은 땅에 떨어지고 만다」고 하였습니다. 「邪徑」<sup>68)</sup>의 해됨이 복심·이목의 처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공필의 인종에게 간한 말에는 「諫官은 이목이 되고 집정은 고굉이 된다. 고굉과 이목은 반드시 서로 用이 되어야 온 몸이 편안하고 웃머리(元首)가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邪徑을 밟지 않고 서로 用이 되는 것이 지전의 도라고 하옵니다. 부디 성명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修省<sup>69)</sup>을 정성스럽게 하여 하늘의 사랑(天愛)을 이어 받을 것. 신은 듣자오니 동중서가 무제에게 고하는 말에 이르기를 「국가에 실도하는 큰 잘못이 있으려 할 때는 하늘이 먼저 재해를 내려 견책하는 뜻을 알리고 그래도 자성할 줄 모르면 또 괴이를 내려 놀라게 하고 그래도 변할 줄 모르면 傷敗가 이르나니 이것으로써 천심이 인군을 사랑

66) 「胡越」, 胡는 북쪽에 있는 나라 越은 남쪽에 있는 나라이므로 서로 반대하거나 감정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할 때 「胡越」이라고 표현함.

67) 「元首가 죄죄하면……」, 『書』 「익직」 편에 있는 말인데 원문은 [臯陶가 또 노래에 이르기를] 「元首叢哉·股肱惰哉·萬事墮哉·」라고 하였다. 「叢脞」(총좌)는 蔡沈集傳에 의하면 「煩碎也」라고 해석하였다. 번잡하고 잘고 좁스러운 것을 뜻하는 말이니 우리 속어에 「죄죄하다」는 말로 바꿀수 있다. 股肱= 팔 다리 大臣

68) 「邪徑」, 정상적인 정도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사특한 길.

69) 「修省」, 자수와 반성

하여 그 난을 그치게 하려고 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뜻 깊은 말입니다. 만세의 인주는 마땅히 귀감으로 삼아 경홀히 여기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하오나 인주는 이에 있어서 또 마땅히 천심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를 알아야 하고 또 마땅히 내가 천심을 받드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익숙히 강구하여 참되게 體行해야 거의 천심을 받들고 군도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그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 이르기를 천지의 대덕은 生이라고 합니다. 무릇 천지 사이에 生을 먹음은 류가 부지기수이니 움직이는 것, 땅에 박힌 것, 큰 것, 작은 것이 모두 하늘의 덮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인데 특히 우리 사람에 있어서는 형상이 닳았고 가장 靈하여 천지의 心이 되어있는 것이니 그 인애는 더욱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 마음은 있어도 스스로 베풀지 못하고 반드시 가장 靈한 것 가운데서도 그 聖哲한 元良으로서 德이 神·人에 화협한 자를 돌보아 임금으로 삼고 백성을 길러 養하는 일을 부탁하여서 그 인애의 정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명하고 도와주고 사방을 편안케 해주었으나 그래도 혹 게을러서 난이 소홀한데서 생길까 염려하여 이에 또 이른바 災異·警譴의 가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임금에 대하여 이렇게 다시금 다시금 친절하게 하는 까닭은 다름 아니라 이미 인애의 책임을 여기에 맡겼으니 마땅히 인애의 보답을 이쪽에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인군된 자로써 하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공연히 그런 것이 아님을 안다면 반드시 그 임금 노릇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요 반드시 천명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높이 높이 위에서 날마다 날마다 여기를 내려 감시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 조금도 거짓말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능히 이렇게 되면 평일에 있어서 반드시 마음 먹고 몸을 신칙하여 敬과 誠으로써 상제를 받들어 빛나게 함이 극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災譴<sup>70)</sup>을 만났을 때에 있어서 반드시 허물을

70) 「災譴」, 하늘이 재앙을 내려 그것으로써 인간에게 견책하는 뜻을 보이는

반성하고 정사를 고쳐 닦아 愼과 實로써 천의를 감격시킴에 더욱 마음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 紊亂에 이르지 않도록 바로 잡히고 나라가 위기에 이르지 않도록 안보될 것이니 실패 없이 안전함을 여기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천심을 모르고 그 덕을 삼가지 않는 자 만이 모든 것을 이와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상제가 진노하여 禍敗를 내리는 것이니 이는 하늘이 부득이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또한 심히 두렵지 않사옵니까? 지금 주상전하께서는 등극하신지 일년이 되었는데 무릇 上敬·下恤하시고 修德·行政하시는 사이에 인심에 거슬리거나 상제께 죄지은 일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천변이 자주 일고 재앙이 함께 생겨 和氣가 응치 않아 보리농사가 전멸되고 수재의 참혹함은 振古에 없던 바요 우박·황충 같은 갖가지 괴이가 다 나타나 상천이 전하께 무엇을 노하여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천도는 멀지만 실은 가까운 것이며 天威는 지엄하여 장난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신은 우매하와 감히 함부로 헤아려 말할 수 없사오나 가만히 동중서의 말로 미루어 보면 이것은 천심이 전하를 사랑함이 깊고 경계함이 지극한 때문인가 합니다. 또 지금 전하께서 이미 天眷<sup>71)</sup>을 받아 人牧<sup>72)</sup>이 되셨으니 자리에 올라 정치를 도모하시는 마당에 있어서 喪에 거하시며 道를 생각하시는 날이 곧 근본을 바로잡고 시초를 빠르게 할 때이며 「哲命을 스스로 끼쳐 줄」<sup>73)</sup>때입니다. 만약 안연한 총애가

---

것.

- 71) 「天眷」, 하늘님이 돌보아 주는 사랑, 『書經』 「태갑중」에 「皇天眷佑」라고 있음.  
 72) 「人牧」, 인간의 목자—즉 임금, 『孟子』 양혜왕상에 「今天下之人 牧·未有不嗜殺人者也」라고 있음.  
 73) 「스스로 哲命을 준다」, 『書經』 「소고」에 「若生子·罔不在厥初生·自貽哲命」이라고 있다. 임금이 즉위하여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때는 마치 어린애가 태어난 때와 같아서 어린애가 장래에 지혜롭게 되느냐 안되느냐는 오직 자기에게 있어서 어려서부터 착한 것을 배워 착한 습성을 기르면 절로 지혜롭게 되는 것과 같이 임금이 初政부터 올바르게 하는 습성을 기르면 祿命이 길러지게 된다는 말이다. 선조에게 즉위 초부터 정치를 잘하라고

있는 줄만 알고 혁연한 위엄이 있는 줄을 모르면 공구하는 마음이 날로 해이해 지고 사벽한 情이 도리어 방사하여 강물의 뚝을 터 놓은 것 같아야 아니하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해를 내려 謹告해 놓고 또 괴이를 내려 警懼하게 하는 것이니 천심의 전하를 인애함이 심절하고 저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르오나 전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自修하여 천의에 당하고 禍萌을 없애려 하십니까? 옛적에 孔光是 천도를 걱정할 것 없다 하고 安石은 천변을 두려워 할 것 없다고 하였으나 다 속이고 아첨하는 간사한 말로서 하늘에 죄를 짓는 바 크거니와 동중서·유향의 무리는 또 아무 재앙은 아무 잘못의 반응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또 너무 구구하고 체루하여 혹 상응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도리어 인군으로 하여금 天譴을 두려워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는 버릇을 열어 주기에 알맞으니 역시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생각하옵기를 임금의 하늘에 대하여 마치 자식이 아버지께 대한 것과 같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노함이 있으면 자식은 공구·수성하여 노한 일이나 노하지 않은 일이 나를 불문하고 일마다 정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하면 아버지는 그 誠과 孝에 기뻐하여 노하던 일 까지도 함께 渾化하여 흔적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않고 꼭 어느 한 가지 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해서만 공구·수성하고 다른 일은 여전히 방자하게 되면 효도를 다함에 성실히 못하여 거짓으로 하게 될 터이니 어찌 아버지의 노를 풀고 아버지의 기뻐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아버지 섬기는 마음을 미루어 하늘 섬기는 도를 다하시어 어느 일이나 修省하지 아니함이 없고 어느 때에나 慄懼하지 아니함이 없으시고 聖躬에는 비록 과실이 없더라도 心術의 은미한 사이에 쌓여 있는 흠과 병통을 깨끗이 씻어버려야 하며 宮禁內에서는 비록 가볍이 본시 있겠지만 戚屬·幽陰한 유들이 올려 바치고 찾아 뵈고 안개처럼 모여드는 따위 일은 막아 버리지 않으면 앓되는 것이며 간언을 들음에는 비록 「鬪을 돌리듯」<sup>74</sup>하는 미덕을 가지시지만 때로 사의로써 굳게 거부하시는

---

권고하는 의미로서 인용하는 문구임.



일이 있으면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요 선을 즐김에는 비록 色을 좋아하듯 하는 성의는 가지시지만 혹 허로써 억지로 구하는데 까지 이르는 일이 있으면 마땅히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벼슬과 賞은 함부로하여 공 없는 자는 요행으로 얻고 공있는 자는 不平으로 이산하게 해서 안되며 사면과 宥罪는 악한 자로 하여금 죄를 면하고 선한 자로 하여금 해를 받게 해서 안됩니다. 절의를 숭상하고 염치를 장려하여 名敎의 방위를 굳건하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 안되며 검약을 숭상하고 사치를 금하여 공사의 재력을 通裕있게 하는 일도 느즈러지게 해서 안됩니다. 조종의 成法·舊章도 오래면 폐가 생기는 것이니 약간 변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나 그 良法·美意까지 모두 뜯어 고치면 반드시 큰 우환을 일으키며 縉紳<sup>75)</sup>으로서 「正」을 미워하고 「異」를 싫어하여 틈을 타서 事端을 이끄는 자들은 미리 진정시켜야 하는 것이나 그러나 혹 어질고 착한 사람들 류에서 혼자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서로 배격하게 되면 반드시 도리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로지 守舊·循常하는 신하에게만 의뢰하면 至治를 분발·진흥시킴에 방해되고 新進·喜事하는 사람에게만 맡기면 化란의 단서를 도발하게 됩니다. 京外의 서리·노복들은 공납품을 이리같이 뜯어먹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국고를 도적질하여 비우고 鎭浦의 장수들은 군졸을 호랑이 같이 삼키고도 오히려 차지 못해 隣族에까지 해독을 퍼뜨립니다. 기황은 이미 극심했어도 구제는 대책이 없으니 못도적이 일어날 것 같고 변방은 공허한데 남북으로 틈이 벌어지니 小醜들의 뜻 밖의 습격이 염려됩니다. 이런 等類의 일은 신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하께서 하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74) 「圓을 굴리는 것 같은 미덕」, 『漢書』梅福傳에 「昔高祖納善若不及·從諫若轉圜」이라고 있다. 顏師古의 注에 「轉圜言其順也」라고 하였다. 임금이 신하가 간하는 말을 잘 받아들인다는 말인데 둥근 물건은 모난 물건보다 돌리기가 매우 順하다. 「환을 돌리듯 하는 미덕」이란 말은 간언을 잘 받아들이는 미덕이란 뜻이다.

75) 「縉紳」, 옛적 공경 대부들은 조정에서 大帶에 홀을 꿋고 朝見하였다. 大帶에 홀을 꿋는 것을 진신이라하는데 전하여 고관을 가리키는 말로 되었다.

주심이 헛된 일이 아니란 것을 깊이 아시고 안으로 신심에 반성하여 敬으로 일관해서 중단이 없으시고 밖으로 정치에 행을 닦아 誠으로 일관하여 거짓 꾸밈이 없으시고 천인의 際에 자처하심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진히 하시면 비록 한수의 災와 譴警의 도래가 있더라도 오히려 공구·수성의 힘을 베풀어 하늘이 주시는 인애의 마음을 이어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신이 논한 여섯 가지의 일같은 것도 점차 해소되고 고쳐져서 治平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여 자신에 근본을 세우지 않고 세상이 다스려 지기를 바라거나, 그 덕을 변함없이 지니지 않고 하늘에 보응이 있기를 책하거나, 평시에는 「경천·홀민」할 줄을 모르고 재변을 만나면 자성의 형식만 갖추어 迂泛히 응한다면 신은 저허하건대 「否·泰가 서로 極」<sup>76)</sup>이 되고 치·난이 서로 기회를 타서 수백년 昇平의 끝에 국사가 염려됨이 장차 오늘의 폐해보다도 몇 배 더할 것이며 천심의 전하를 사랑함이 되리어 전하에게 자포자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서에 이르기를 「황천은 친함이 없이 오직 잘 공경하는 자를 친하며 백성은 못잊어하는 사람이 없이 오직 인덕가진 자를 못 잊으며 귀신은 늘 받는 제향이 없이 오직 정성어린 제향만 받는다」<sup>77)</sup>하였고 시에 이르기를 「天의 威를 두려워하여 언제나 그 뜻을 보전하라」<sup>78)</sup>고 하였습니다. 오직 성명께서 유의하시기 바라나이다.

76) 「否泰相極」, 易에 泰卦는 乾下坤上, 즉 陽(☰)이 아래있고 陰(☷)이 위에 있어서 陰은 그 성질이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陽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며 상하가 상교하기 때문에 길하고 否卦는 그와 반대로 坤下乾上, 즉 陰(☷)이 아래 있고 陽(☰)이 위에 있어서 서로 상교가 되지 못하고 각각 극단으로 반대방향으로 달아나기 때문에 흉하다고 한다. 「否泰相極」이란 상하가 상교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좋지 못한 현상을 말함.

77) 「皇天은 親함 없이……」, 『書』 「태감하」에 이윤이 태감왕에게 고하는 말에 「唯天無親·克敬惟親·民罔常懷·懷于有仁·鬼神無常享·享于克誠」이라고 있다.

78) 「天의 威를 두려워 ……」, 『詩』 「주송·아장」 편에 「我其夙夜·畏天之威·于時保之」라고 있음, 「于時保之」는 하늘의 뜻을 잘 간직해 받든다는 뜻임.

위 육조에 진술한 바는 다 무슨 사람의 이목을 놀렐만한 굉장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은 彝教에 참가되 性·道에 뿌리박고 성현에 근거하되 중용·대학에 맞추고 史傳에 상고하되 시사에 증험하여 말씀 드린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비근하다해서 할 것이 못된다 마시며 우월하다해서 할 필요없다 마시고 반드시 먼저 처음 二條로써 근본을 삼고 더욱 성학의 공부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효과를 보려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계를 긋지도 마시고 그 극치를 다하여 과연 여기에 얻은 바 있으시면 나머지 다른 일들도 날을 따라 일을 따라 더욱 밝아지고 더욱 충실하게 되어 理義의 내 마음을 기쁘게 함이 참말로 소고기 돼지고기가 입을 기쁘게 하듯이 될 것입니다. 吾人의 성정은 참으로 요순이 될 수 있는 것이니 비근하고 천소한 것을 떠나지 않아도 실은 고심하고 원대하며 무궁한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이른바 연원을 찾아 치도를 밝혀 내고 본말을 관통하여 大中을 세운다는 것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에 이르러 비로소 小官의 말씀이다 조술한 바 있고 가공으로 지어내어 전하를 속이는 것이 아님을 믿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신은 이 학문에 대하여 들어 안 것이 이미 늦었고 병이 또 깊어서 이것을 힘써 실천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하였으니 전하의 성의에 보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恐縮·惶惑하여 감히 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할 수 없이 이 걸음을 하였사오니 또 감히 이 말씀을 감추고 다른 말씀으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전하께서 사람 때문에 말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에 취하는 바 있으시면 지금의 공경대부들이 다 이 설을 誦習하고 이 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오니 위에서 좋아하는 자 있으면 아래에 반드시 더 심한 자가 있는 법입니다. 전하께서 「문기를 좋아 하시고 가까운 말을 잘 살피시며 사람에게 취하여 선을 함을 즐겨하여」<sup>79)</sup> 「緝熙」<sup>80)</sup>의 공부를 날로 더하시면

79) 「문기를 좋아하고……」, 『中庸章句』 제 6 장에 「舜好問而好齋邇言」이라고 있음.

누가 감히 전심을 바쳐 성덕을 助成하려고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 신은 비록 田間에 병들어 누워 있어도 날마다 성덕에 접근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암혈에서 고사하여도 萬生靈과 더불어 성택의 흐름에 같이 몸을 적시겠나이다. 간절히 비는 마음 맡길 데 없어, 오직 죽음을 무릅쓰고 삼가 들러 올리나이다.

---

80) 「緝熙」, 『詩』 「대아·문왕」 편에 「穆穆文王·於! 緝熙敬止」라고 있다. 주자집전에 풀이하기를 「緝」은 계속한다는 말이고 「熙」는 밝다는 말인데 또한 마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공경함을 계속하여 마지않는 것이 「緝熙敬止」의 뜻이다. 「止」는 어조사로 쓰는 글자.